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수집현황과 기술규칙 제안*

Survey of the Archives of NDRM, Memory of the World and a Proposal of
their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김경남(kim, kyung-nam)**

1. 머리말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 3) 선행연구
2. 매뉴스크립트 컬렉션형 세계기록유산의 기록학적 관리의 필요성
 - 1) 매뉴스크립트 컬렉션형 세계기록유산의 개념
 - 2) 세계기록유산의 기록학적 관리의 필요성
3.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수집 현황
 - 1) 국채보상기록물 컬렉션의 수집 현황
 - 2) 국채보상기록물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특징
4.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분류와 생산맥락 분석
 - 1) 활동, 시간, 종류, 수록매체에 따른 분류
 - 2) 출처에 따른 생산맥락 분석
5.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정리기술(記述) 규칙
 - 1)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다계층 기술 요소
 - 2)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기술 규칙 제안
6.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1055801).

** 경북대학교 교수(knkim@knu.ac.kr).

■ 투고일: 2021년 12월 31일 ■ 최초심사일: 2022년 01월 14일 ■ 최종확정일: 2022년 01월 20일

■ 기록학연구 71, 91-130,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2.71.091>

〈초록〉

본 연구는 최근에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 2,475건을 대상으로 생산배경과 그 출처를 분석하여 분류 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제기하고, ISAD(G) 2ND EDITION, ISSAR, NAK를 참조하여 매뉴스크립트 컬렉션형 기록물 기술 규칙을 만들어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다수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등재된 이후에도 기록물이 추가되는 추세에 따라, 기록학적 관점에서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기술 규칙을 만들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인위적 수집 컬렉션이다.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은 쉐렌버그의 출처주의에 입각하여 기록의 작성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활동별, 시간별, 자료의 종류별, 매체별, 주제별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제시한다면 세계기록유산 기록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국채보상의연금총회소, 기술규칙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1) come up with a new way of the classification by analysing 2,475 of the documents in the Archive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NDRM) recently registered as the Memory of the World; (2) make a proposal of their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with reference to ISAD(G) 2ND EDITION, ISSAR, and NAK. This leads to the suggestion of necessity to make archivistically the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of archives in the Memory of the World and manage them on the rules, in view of the recent trend of increasing the number of the records registered as the Memory of the World and adding the records even after their registration.

The archives of NDRM is an artificial collection. It can be said that

the classification of manuscript collection on the basis of the preparation subject according to Schellenberg's principle of the provenance is the most systematic. On the foundation of it, the suggestions of various classifications by activities, times, sorts of records, medias, topics, etc. would permit to search and interpret the archives in the Memory of the World with more efficiency.

Keywords : Memory of the World,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Manuscript collection

1.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2017년부터 고궁박물관, 한국연구원, 서울대, 한국국학진흥원 등에 소장되어 있는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만든 매뉴스크립트 컬렉션(manuscript collection)이다. 기념사업회는 이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학술대회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19년 유네스코는 2,475건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이 기록물군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 필요한 기록물의 진정성, 세계적 중요성, 희귀성, 완전성 등을 인정받았다.

세계기록유산은 2020년 현재 427건이 등재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한국 관련 기록유산은 16건이 등재되었다.¹⁾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목적

1) 한국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새마을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국채보상운동기록물 등이다(<https://en.unesco.org/program/me/mow/documents>). 성노예 '위안부'기록물, 동학농민운동기록물 등은 현재 등재 준비 중이나, 반대 국가가 있을 경우 등재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은 세계의 중요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활용하여 잘 보존하고, 기록유산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기록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기록유산 목록화 사업(Memory of the World Register)이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앤드류 헨더슨, 2019).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팀에서는 등재기록에 대한 디지털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등재된 단체나 국가기관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등재 기록물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기록유산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등재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기관에서 계속 기록물을 수집하여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기록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국제적인 호환성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제표준 ISAD(G) 2ND EDITION²⁾, 이를 개선한 ISSAR, 한국의 NAK에 기반하여 정리 기술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의 목적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과 추가 발굴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기술 규칙을 만들어 제안하고자 한다. 그 대상은 최근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907년부터 1910년까지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출처를 분석하고, ISAD(G)2ND EDITION과 ISSAR(CPF)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 한국의 NAK 13:2011(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을 참고하여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적합한 기술 규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2) ISAD(G) 2nd Edition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Second Edition).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근현대 시기 특정 주제와 관련된 수집기록물로서 최근에 등재되는 세계기록유산과 같은 유형적 특징을 나타내며, 등재기록물보다 추가 발굴 기록물이 훨씬 많다. 또한 최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학적 차원의 검토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연구 방법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 중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으로 구성된 기록유산이 많고, 등재 이후에도 계속된 수집으로 미등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록관에서는 영구기록물을 수집·정리, 평가·분류, 보존·열람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기록학적으로 관리하려면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고 각 분야마다 규칙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나 국채보상운동기록물 등 세계기록유산 관리기관은³⁾ 전문 인력 부재나 보존 장소의 문제, 예산 문제 등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기관이나 개인에게서 수집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경우 분류 문제와 기술 규칙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술 규칙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기록물 기술 규칙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공공기관의 영구기록물을 중심으로 한 제안이 많다.(곽건홍, 2019; 김수현, 이성숙, 2020) ISAD(G)2ND EDITION과 ISSAR(CPF), 한국의 NAK13:2011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은 대체로 공공기관의 현용기록물이나 이관기록물에 적절

3) 세계기록유산 관리기관과 소장기관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기록물 관리 실태는 모두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다.

한 기술 규칙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은 운동이 발생하고 수십 년 혹은 백년이 지나 기록물을 수집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기술 규칙을 참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수집처에서 수집한 컬렉션에 맞는 매뉴스크립트 기술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이나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새마을운동기록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미 세계기록유산은 아니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소장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대상으로 분류체계와 기술 규칙을 개발한 연구가 있다.(이승휘, 2002; 전명혁, 2003, 2004; 박정옥 이명규, 2013) 하지만 세계기록유산이라는 관점과 범주에서는 아직 기술 규칙이 연구되지 않은 상황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는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도 연구된 기술 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과 미등재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기술 규칙은 반드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생산맥락을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처주의적 인식 방법이 효율적이다. 출처주의는 기록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에 의해 작성된 기록군에 대해 작성 주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T.R.Schellenberg, 1956, 1965). 세계기록유산 중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 방법이다. 특히 근현대시기와 관련하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수집기록물의 경우는 기록물 생산에 참여한 주체가 단일한 경우보다 복수일 경우가 더 많다.

본고에서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 2,475건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정리 기술 규칙의 사례를 만들어 제안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매뉴스크립트 컬렉션

의 새로운 사례가 만들어지며, 나아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선행연구

기록학에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경우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현용기록물이나 이관기록물과는 다른 분류체계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대한 분류 체계 연구는 역사 사건을 중심으로 수집한 기록물군을 사례로 다양한 기록물 분류체계를 시도하고 있다. 기록물 분류 역할은 관리기관에서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기록물을 접근하기 편리하다.(설문원, 2012)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소장처가 혼재되어 있어 무질서한 기록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세계기록유산은 아니지만 이미 민주화운동기록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류 체계와 기술규칙 표준화 시도가 있었다. 세계기록유산의 기술 규칙을 만들기 위해 이전부터 있었던 이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이승휘(2002)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사례로 가장 먼저 민주화 운동 사료 기술규칙 표준 개발을 시도하였다. 전명혁(2003)은 웰레버그의 집합적 기록물군(collective archival group) 개념을 활용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매뉴스크립트 기록물을 사례로 기록물 계층 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는 최상위에 18개의 부문운동(정치, 노동, 농민, 인권, 통일평화, 시민 등 18개를 관리 그룹(group)으로 위치시키고,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s), 기록물건(item)으

로 나누었다. 또한 민주화운동사업회 소장 한국YMCA 전국연맹컬렉션
을 사례로 기능분류에 대해서도 시도하였다.(정진임, 2007)

이후 다양한 역사기록물 컬렉션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특성을 도출해
내고 분류 체계를 만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김솔아(2013)는 국가기록
원 소장 사할린 한인 컬렉션을 사례로, 역사기록물 컬렉션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박정옥·이명규(2013)는 분산되어 있는 5.18
민주화운동기록물을 사례로, 집합적 기록물군 개념을 활용하여 주제별,
시기별, 형태별 분류 방법을 제시하였다. 장화우(2014)는 지방문화원의
향토기록물에 대하여 1차 생산출처, 2차 생산시기, 3차 관련 주제어, 4
차 형태로 기록물 분류표를 제시하였다. 박성우와 정대근(2017)은 광주
지역 5.18민주화운동기록물에 대한 출처 기반 통합분류 체계를 시도하
였다. 김유선과 이명규(2018)는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를 사례로, 유형
별, 생산시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독립운동과 관련한 분야에서도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발굴
하고 분석하여 기록물을 분류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김정남(2017)은
일본의 오하라사회문제연구소(大原社會問題研究所)에 있는 한인독립운
동 관련 컬렉션의 생산맥락에 대한 특징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주제별,
시기별로 분석하여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오정희·정연경
(2018)은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를 사례로 비교 분석하면서, 국가보훈
처의 독립운동기록 분류체계를 공훈전자사료관 컬렉션을 바탕으로 도
출하였다.⁴⁾ 윤혜선, 정연경(2020)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기록물을 사
례로 생산자(조직), 생산시기, 주제, 유형별 분류체계를 만들어 민통련
기록물에 적용함으로써,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자 중심 분류
의 기본 구조를 제시하였다.

4) 이 연구는 국외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로 아일랜드, 인도, 중국을 들고, 국내는, 국
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국가
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하기 위한 디지털화와 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다.(해롤드 쇼트, 2019; 아사노 기타모토, 2019; 김귀배, 2019; 앤드류 헨더슨, 2019; 김정남, 2019) 하지만 기록학적 관점을 접목시켜 연구하는 것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기록학적 분류와 기술 규칙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채보상운동 자체와 인물, 조직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학에 바탕을 둔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어야만 기록물의 기술 규칙 항목에 내용을 기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채보상운동의 실체와 운동의 의미, 기록물의 유형 등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상당히 축적되었다.(신용하, 1994; 대구상공회의소, 1997; 이상근, 1995; 김도형, 1997; 김상기, 2002; 김형목, 2004, 2009, 2011, 2016; 나눔과 책임연구소, 2017; 엄창옥·남권희·전재동·이정호, 2019);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19~2020).

하지만 각 지역별 사례연구는 아직도 많이 연구될 필요성이 있으며, 1차 자료에 대한 계속된 발굴과 함께 극복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다. 더욱이 세계기록유산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향후 역사학과 기록학, 박물관학에서 학제간 협동 연구를 통해 이 분야 연구를 확장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기록유산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둘째,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현황과 생산맥락을 파악한다. 셋째, 다양한 곳에서 수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ISAD(G) 2ND EDITION, ISSAR, NAK를 참조하여 매뉴스크립트 컬렉션형 세계기록유산 기록물의 기술 규칙과 메타데이터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매뉴스크립트 컬렉션형 세계기록유산의 기록학적 관리의 필요성

1) 매뉴스크립트 컬렉션형 세계기록유산의 개념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이란 어떤 기준이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외부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인위적인 기록물 컬렉션을 의미한다. 분류의 역할은 전체 기록물 속에서 각각의 기록물을 분류함으로써, 기록물간의 유기적이고 계층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류를 통해 관리기관에서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접근하기 편리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설문원, 2011, 2012)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집된 기록물로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종류

구분	내용
인위적 컬렉션	상호 연관있는 행위가 발생한 후에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한 것
조직형 컬렉션	특정한 개인이나 종교, 교육, 사회단체 등과 같이 특정한 조직적 출처에서 생산된 기록
혼합형 컬렉션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어진 단일한 기록물 아이템이나 기록물 아이템의 작은 그룹으로 구성된 기록

셸렌버그는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인위적, 조직형,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Schellenberg, 1956)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인위적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기념사업회가 2015년부터 각급 기관과 개인 소장 기록을 인위적으로 수집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록물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출처주의에 입각한 기록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출처주의는 작성 주체를 기록의 라이프 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수집하기 용이하다. 수집기록물을 추가하고자 하나 관련기록물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할 경우, 출처를 찾아가는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생산주체가 복수일 경우 더욱 필요한 수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출처가 혼합되어 있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처주의에 기반하여 기록물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2) 세계기록유산의 기록학적 관리의 필요성

그러면 왜 세계기록유산을 기록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기록학 관리의 기본 요소로서, 수집, 정리, 평가, 보존, 열람 등의 기록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도 지정된 기념사업회에서는 관련 기록물을 계속 발굴 수집하여 완결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등재 이후 기록물을 수집할 경우에는 출처의 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을 추적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록학적 수집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에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 5.18관련기록물, 새마을운동기록물 등 근현대시기에 생산된 기록물일수록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경우 모든 기록물을 수집한 후 등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관련기록물을 계속 발굴하여 완결성을 갖추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기록물은 한 건이 아니라 다수의 기록물이 등재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추세는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을 출처주의에 입각하여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등재기록물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수집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둘째, 등재기록물과 미등재기록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ISAD(G)가 제시하는 국제목록기술표준원칙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ISAD(G) 2ND EDITION에서는 기록물을 식별영역, 배경영역, 기술영역, 기타영역으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기록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었으며, 어떤 경로로 관리기관이 소장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 기록물의 생산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추가 수집할 기록물이 예상되는 경우에 기술하게 되어 있어, 향후 수집 계획을 세우기에도 용이하다. 대체로 미국, 영국, 호주, 한국 등 세계의 공공기관에서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ISAD(G) 2ND EDITION에 따라 메타데이터 항목을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으로 설계하여 등록하고 있다.⁶⁾

셋째, 평가분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등재기록물을 별도로 관리하더라도 미등재기록물을 추가로 수집하여 정리 할 경우, 기록물과 기록물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생산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재든 미등재든 종합적으로 평가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출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물을 평가 분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기록물 생산자가 시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국채보상운동의 경우 대표적인 단체인 1907년에 광문사는 같은 해 대동광문사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국채보상운동 관련 조직들도 생성되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물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이관되어 관리된다. 그러므로 기록물 전거레코드를 만들어 생산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록물이 생산된 배경이나 일정 연원을 파악하는 기능을 제공한

5)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성노예 '위안부'기록물 등.

6) 물론 한국, 미국 등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모든 기록물을 메타데이터 항목을 설계하여 등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방향은 메타데이터를 설계하여 등록하고 있다.

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김명훈, 2003; 설문원, 2003)

또한 기록물 원본의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왜 기록물을 생산했느냐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며, 최근 원본의 위작이 많아지는 추세에 따라 이러한 원본의 치밀한 평가분류는 더욱 필요성이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보존관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에서 유일한 희귀성이 인정되는 기록물이며 영구 보존되어야 할 귀중한 아카이브이다. 따라서 기록학적 관점에서 보존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념사업회는 물론 주무 기관에서는 대부분 예산문제나 인식문제 등에서 기록학적 보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물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종이기록과 시청각기록, 행정박물 등 기록물의 형태에 따라 보존서고의 온도나 습도를 유지해야 하고 종류에 따라 별도의 보존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미등재기록물은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인 보존 인식부재와 전문적인 관리 인력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섯째, 열람·전시의 측면을 들 수 있다. 세계기록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기관에서는 원본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등재기록물은 물론 미등재기록물도 모두 대상으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시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록물을 열람·전시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백데이터로서 메타데이터 항목을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세계기록유산목록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화 작업은 기록관의 열람과는 다르지만, 향후 미등재기록물도 포함할 경우에는 메타데이터의 필수요소와 선택요소를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작업은 기록물에 대한 제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메타데이터 작업을 바탕으로 디지털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기록물의 촬영, 색인어(핵심어) 작업과 시소러스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 찾고 싶은 색인어를 입력하면 상호 연관 기록물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세계기록유산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역사문화콘텐츠를 만들 소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과 홍보 등에서도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과 미등재기록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수집, 정리, 평가분류, 보존관리, 열람·전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기록학적 관리를 통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과 미등재기록물의 총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기록유산의 목적은 더욱 보편 타당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정신도 더욱 풍부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3.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기록물의 수집 현황

1)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컬렉션의 수집 현황

2015년 5월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만들었다. 기념사업회는 기록물 수집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술연구사업 및 범시민 홍보운동을 전개하였다. 컬렉션은 당시 발단과 전개, 확산과 파급, 일본정부(통감부) 기록, 신문 및 잡지 등 언론기록물 네 종류로 구성하였으며 대부분 종이기록물이다.⁷⁾

7) 대구광역시, 2007, 국채보상운동 100년.

기념사업회는 기록물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결과, 2년 뒤 2017년 10월 유네스코는 2,475건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그러면 실제로 국채보상운동 등재기록물의 자료를 통해 메타데이터 항목을 추출해보자. 분석대상은 등재기록물 2,475건이다. 국채보상운동 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 등재 현황

등재기록물목록 번호	종류	건수	비고
1-96	고문서	96	취지서, 의연금 모집 등 고문서
97-211	통감부문서	115	한국통감부의 탄압 문서
212-215	잡지	4	대한자강회월보, 서우, 대한유학생회보
216-1351	대한매일신보	1,136	의연금 모집 광고, 국채의연금총합소 기록 등
1352-1967	황성신문	616	의연금 모집 현황
1968-2345	만세보	378	의연금 모집 현황
2346-2378	대한민보	33	의연금 모집 현황
2379-2407	공립신보	29	의연금 모집 현황
2408-2461	경성신보	54	의연금 모집 현황
2462-2475	매일신보	14	의연금 모집 현황
합계		2,475	

이와 같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고문서 96건, 통감부문서 115건, 잡지 4건, 신문이 가장 많은 2,260건으로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만세보, 대한민보, 공립신보, 경성신보, 매일신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취지서와 의연금 모집 활동, 국채의연금총합소, 국채의연금상채회 등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지역적 활동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특히 신문에는 의연금 기부현황이 성명, 의연금, 지역, 신분 등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

등재가 된 이후, 기념사업회에서는 일반 독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7권의 총서를 번역집으로 발간하였

다. (국채보상운동자료총서 1~7, 2019) 자료총서는 원본자료, 탈초(국한문혼용, 한문, 일본어), 번역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국채보상운동기념회가 소장하고 있는 등재 기록과 미등재 기록은 2019년 현재 6,255건이다. 등재기록이 2,475건이며, 미등재기록이 3,780건(2019년 현재)이다. 등재기록은 거의 대부분 국채보상운동기념회가 국립고궁박물관, 한국연구원, 서울대 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등 국내·외 13개 기관에서 복제하여 수집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미등재기록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기념사업회가 24개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사들인 기록이다. 등재기록을 국가기관, 민간기관, 개인별 소장처별로 나누어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소장처 성격별로 본 소장건수

구분	소장 기관 (소장 건수)
국가기관	국립고궁박물관(639), 국사편찬위원회(117), 한국국학진흥원(52), 한국금융사박물관(8), 국가기록원(4), 독립기념관(3), 대한민국역사박물관(2)
민간기관	한국연구원(791),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25)
학교기관	서울대중앙도서관(454), 연세대학술정보원(378), 고려대도서관(1)
개인	개인 (1)

위와 같이, 민간기관 한국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원본 791건이 등재되어 전체의 31.9%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국가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이 639건(25.8%)을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454건(18.3%), 연세대학술정보원이 378(15.3%)건의 국채보상기록물이 등재되었다. 이 네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등재기록물이 91.3%에 해당하며, 그 외 기관이 9.7%이며, 개인기록은 1건 밖에 없다. 국채보상기록물을 켜

8) 총서 구성: 1권 취지서, 발기문. 2권 간찰, 통문, 회문. 3권 권고문, 논설문, 포고문, 연설문. 4권 공문서, 규칙·규정, 돈청문, 보고서, 청구서, 청원서, 임명장. 5권 시문, 완의문, 일기, 회고록, 서적, 광고문, 영수증, 성책, 기타문서. 6권 통감부, 총독부 기록물. 7권 기타 의연사례, 의연총합, 의연명단

렉션으로 수집한 기관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로서 등재된 원본 25건(1%)을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념사업회에서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수집한 기록물이 3,800건이 넘어 등재기록물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채보상기록물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특징

기록물의 생산 배경을 기록조직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된 역사적 배경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록조직론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물의 생산 출처와 맥락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운동으로서, 대한제국이 일본, 영국 등 다른 제국으로부터 빌린 차관(외채) 때문에 주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여, 1907년부터 1908년까지 2년에 걸쳐 부산항에서 시작하여 대구에서 기폭되어 한성을 중심으로 전국과 해외로 확산된 주권회복운동이다.(나눔과 책임연구소, 2017; 엄창옥·남권희·전재동·이정호, 2019) 또한 한국통감부가 재판과정과 한국의 국채보상운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본 본토는 물론 영국, 미국 등 관련 기관과 국제적 연관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국제성을 띠고 있다.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을 생산맥락과 출처주의에 입각하여 구분하면 크게 국내와 해외라는 두 가지 풍(Fonds)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산맥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한제국이 종속되어 가는 과정에서 상공인을 중심으로 하여 전 국민이 운동을 통해 만들어냈기 때문에 민간기록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내 기록물군은 1907년부터 1910년까지 국채보상운동의 발단, 과정, 결말이라는 전개과정에서 민간에서 작성한 기록을 수집한 풍(Fond)이다. (예시: 광문사, 국채보상운동연합회 등) 실제로 운동은 2

년여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수집 대상 기록물은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하여 결말이 있었던 1910년까지 생산된 기록물이다. 둘째, 해외 기록물군은 국채보상운동이 동아시아 조약항체제와 차관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교 과정에서 작성한 기록을 풍(Fond)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시: 통감부, 영국대사관 등)

다만,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던 기록물과 기념사업회에서 수집한 기록물이 결합되어 있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풍의 하위 시리즈와 서브시리즈를 면밀하게 연구하여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스크립션(Description)과 저작권 기록의 관련성 등 연계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더욱이 의연금을 낸 사람들의 연계 정보는 지역과 의연금 등 구체적인 활동상황을 나타내어 기록물의 효용성을 더해준다.

그러면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컬렉션의 특징을 작성루트와 작성 시기, 조직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분석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서 출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 목록』(2016.5.20)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국내 국채보상운동 주체의 기록물군이다. 운동은 1907년 대구의 광문사에서 출발하여 전국적 규모의 국채보상연합회와 각 지역별 국채보상단연회가 만들어져 전개되었고, 대한매일신보사에 설치된 총회소에서 수합하였다. 그리고 연합회 하위조직으로 각 지부가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충남 등에 조직되었으며, 각 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하위 단위로 면, 리까지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록이 작성되었던 것이다.

둘째, 국채보상운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던 한국 통감부의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록이다. 통감부 기록은 자체적으로 완결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일왕(天皇)과 일본내각의 결정사항을 시행하여 자체적으로 한국통감부에서 생산한 이 기록물은 일본내각과 중층적 구조로 연

계되어 있다.⁹⁾

셋째, 언론에서 보도한 기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신문사는 대한매일신보사이며, 황성신문, 만세보 등이 등재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신문이다. 이 신문들에는 의연금이 중복된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의연금 명단을 파악하거나 합계를 낼 때나 주의가 요구된다.

넷째,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통감부와 재한 영국 총영사, 미국총영사, 도쿄 영국대사관이 관련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도쿄 영국대사관이 영국정부와 연결되고, 일본정부와 영국정부가 문서를 생산하는 맥락도 포착된다. 더욱이 차관을 매개로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등 외교기관과 모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기록물은 국내, 국외로 나눌 수 있으며, 국내는 다시 민간기록과 공공기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기록은 국채보상운동 조직, 언론사, 개인 등을 들 수 있으며, 공공기록으로는 한국통감부, 대한제국, 지방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된다.¹⁰⁾

이처럼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작성 주체는 기본적으로 민간에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수집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생산한 민간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민간역사기록물로 다루어도 무방할 것이다.¹¹⁾ 또한 수집하거나 이관 받은 국채보상운동기록에 대해서는 맥락 정보를 분석하고 출처의 정확성이 확인되는 것만을 엄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역사적 증거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9) 대한제국기 통감부와 일본내각의 중층적 결재구조에 대해서는 김경남, 2020 참조.
10) 대한제국이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기록물을 생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으며, 세계기록유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조사가 필요하다.
11) 2021년도 한국기록학회에서 주최한 민간기록물에 대한 법적 관리,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중요성과 기록학계와 역사학계가 어떻게 협조하면서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4.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분류와 생산맥락 분석

1) 활동, 시간, 종류, 수록매체에 따른 분류

매뉴스크립트 컬렉션형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검색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류 방식과 기술 규칙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래 연구에서 등재기록에 대하여 기록물의 시기별 분류, 종류별·매체별 분류, 수집기관에 따른 분류 등 다양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엄창옥·남권희·전재동·이정호, 2019) 국채보상운동의 활동 종류, 시간, 종류, 수록매체 등에 따른 분류를 들 수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채보상운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당해 기록물은 문서, 신문, 사진, 영상, 박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을 활동의 방식으로 나누면, 금연운동, 의연금 모금 활동, 언론 출판 활동, 문화예술활동, 교육학술, 지역단체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성단체운동, 기생단체운동, 황실의 운동, 국외 운동, 일제의 탄압 의연금 처리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다양한 분류 형태

구분	내용
활동	- 금연운동 의연금 모금 활동, 언론 출판 활동 문화예술활동 교육학술 지역단체활동 - 여성단체운동 기생단체운동 황실의 운동 국외 운동 일제의 탄압 의연금 처리
시간	- 국채보상운동 이전(1907년 이전) - 국채보상운동시기(1907~1909년) - 국채보상 운동 이후(1909년 이후)

자료의 종류	- 간찰, 격문, 격려문, 규약규정규칙, 공함, 광고, 노래 시, 논설, 발기문, 영수증, 청구서, 의연금록, 취지서, 통문, 회답서 및 회문, 기타
수록매체	- 문서 (일본 외교부 문서, 공판기록, 무죄 판결문), 신문, 사진, 음성영상, 구술, 박물관
소장처별	- 고려대도서관(1), 국가기록원(4), 국립고궁박물관(639), 대한민국역사박물관(2), 연세대학술정보원(378), 한국금융사박물관(8), 서울대중앙도서관(454), 독립기념관(3),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25), 한국연구원(791), 한국국학진흥원(52), 국사편찬위원회(117), 개인(1) 등

※비고: 소장처별 괄호안은 소장기록물 수량. 200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건수 2,475건.

시계열적으로 보면,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기 이전 시기, 1907년부터 1909년까지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 활동하던 시기, 1909년 이후 운동이 마무리되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자료의 종류로 구분하는 것은 자료의 성격을 파악하기 용이한 방법으로서, 대체로 간찰, 격문, 격려문, 규약규정규칙, 공함, 광고, 노래 시, 논설, 발기문, 영수증, 청구서, 의연금록, 취지서, 통문, 회답서 및 회문,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16). 이처럼 기념사업회는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출처에 따른 생산맥락 분석

(1) 국내 기관 및 민간 조직

국채보상운동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출처주의에 입각하여 작성주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T.R.Schellenberg, 1956) 국채보상운동은 참여한 주체가 많을 뿐 아니라, 언론기관, 대한제국, 통감부, 일본내각, 영국내각, 도쿄 영국대사, 미국대사 등 수많은 기관과 개인이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다국가와 다양한 단체나 개인들이 생산하였기 때문에 민간기록과 공공기록

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물들의 계통과 맥락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출처에 의한 기록물 분류가 필수적이다. 출처에 의한 분류는 국채보상운동 중앙조직, 지역조직, 도와주는 기관, 참여기관 및 개인, 국외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국채보상운동 중앙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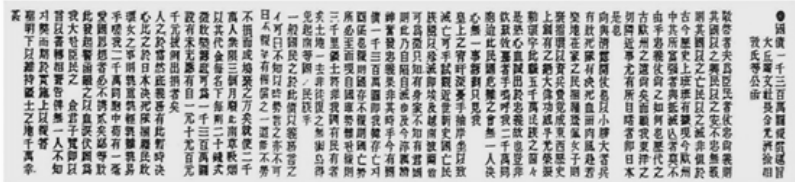
출처 방식에 따르면 기록을 생산한 선도 조직 단체, 참여한 기관 또는 개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 목록번호는 다음과 같다.

<표 6> 국채보상운동 조직에 의한 작성 기록

출처 단체	등재 목록번호	지역
대구광문사(대동광문회)	2	대구
단연상채회	19, 21, 22, 24, 27	전국
전국국채보상연합회의소	2, 4, 7, 11, 15, 28	전국
국채보상기성회	10, 20	전국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26, 30, 125	영국영사관런
국채보상금모집 각 지역 지회	1, 3, 6, 9, 196	전국
국채보상금정리조사회	29, 169, 170, 176	서울

※출전: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16), <부록1> 국채보상운동기록물 목록에서 작성.

<그림 1>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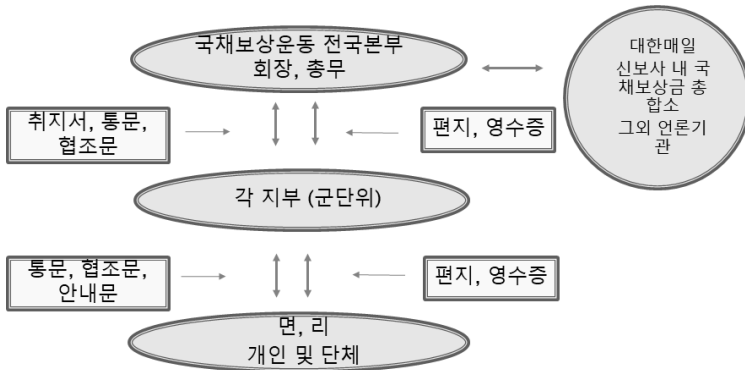


※출전: 대한매일신보 (1907.2.21.), 국채 1300만원 보상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 서상돈씨 등 공표

위의 <표 6>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7년 2월 21일 대구 광문사에서 김광제, 서상돈이 가장 먼저 국채보상운동을 촉발시키는 취지문을 발표하였다.(김형목, 2016, 108)¹²⁾ 이 취지문은 국채보상운동의 선도 조직에 의해 작성된 기록물로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 평가할 수 있다. 광문사는 11월 대동광문회로 개칭한 후 청국의 광학회, 일본의 동아동문회 등과 국제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기관들은 친목도모를 내세워 교육의 국제화가 목적이지만, 일본의 동아동문회의 경우는 점차 우익적 성향을 나타내게 되었다.(채수도, 2021)

다음으로 기록물의 전체 생산구조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채보상운동의 자체 조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 그림은 국채보상운동의 자체조직을 통해본 기록물 생산구조이다.

<그림 2> 기록물 생산구조 - 국채보상운동 자체 조직



등재기록물을 분석한 결과, 국채보상운동 전국 본부에서 각 군단위에 각각 지부를 만들었으며, 면과 리 단위까지 국채 보상운동 조직을 설치

12) 동래상인조직인 동래상무회가 가장 먼저 시작하였다는 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도형 (1997), 한말 대구지역 상인층의 동향과 국채보상운동, 계명사학 8, 270-272.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조직인 국채보상운동연합회의 활동 양상을 볼 때, 기록물 생산이 전국성을 띠고 있으나, 각 지역에서 자발적인 조직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지역성도 동시에 띠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 집행부 기록물의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기구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등재 기록을 중심으로 1907년 국채보상운동연합회 중앙조직의 증거기록에 대하여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자. 등재번호 10, 28, 29, 30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국채보상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 조직에 대한 근거 자료는 등재번호 28번 「국채보상연합회 운영규칙」이다. 이 문건은 국채보상연합회 중앙조직 설립 목적과 5개 항의 운영규칙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29번 「국채보상금조사정리회의 규정집」도 회의 명칭과 설립목적 구성 인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10번 「국채보상기성회의 조직과 모금처 기록」을 통해 중앙 조직과는 별도로 모금처가 별도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번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의 규정」을 통해 임시사무소는 대한매일신보사 내에 둔다는 사실을 알리고 총합소에서 해야 할 일을 제29조 조항으로 엮어서 배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대한매일신보, 1907.3.28.)

② 국채보상운동 지역 조직

국채보상운동 지역 조직도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만들어졌다. 등재기록 중 1907년 국채보상회 지방조직의 증거기록은 다음과 같다. 부산, 한성, 대구, 경북, 경남, 충청, 전북, 전남 등에서 만들어진 조직의 증거에 대해 살펴보자.

〈표 7〉 국채보상운동 지역 조직의 증거 기록

구분	국채보상운동 조직의 증거 기록
한성지부	(2374번) 전국 동포에게 특별히 고함 (1910.3.5.) (1344번) 국채보상금검사소 취지서 (1908.10.3.)
부산동래	(335번) 동래부 국채보상일심회 취지서 (1907.3.10.) (586번) 부산항 좌천리부인회 감선의연 취지서 (1907.4.19.)
경북지부	(15) 연합회의소장 이준→고령군 의무단연상채회장 이두훈에게 (19) 대구단연상채회에서 하양단연상채회로 보낸 서신(1907.4.12)
경남지부	(18) 마산항 의연소에서 향교의연소로 서울로 보낼 날짜 등 문의 (24) 광중석, 안택중이 등 경남 애국상채소 조직 (1907.3.1.)(음력)
충청지부	(889번) 충청남도 태안군 안민도민의회 국채보상 발의문 (1907.6.22.) (2018번) 충청남도(忠淸南道) 온양읍(溫陽邑) 시장상인 등 국채보상의무금(國債報償義務金) (1907.3.8.)
전북지부	(0705번) 전북 정읍 내 단연동맹회 취지서 (1907.5.9.) (0554번) 군산항 객주상회사 국채보상의무사 취지서 (1907.4.14.)
전남지부	(20) 전남 니주군 국채보상기성회에서 다소면 정복원에게 보낸 통문

이 외에도 강원도, 함경도, 황해도, 제주도까지 많은 지역에서 국채보상운동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 기록물의 내용 분석을 통해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참여 단체가 작성한 기록으로서, 당시 대한자강회(213, 214), 대한유학생회(212), 동경유학생회의 단연동맹(215), 서우학회(214), 향교(14, 16, 17) 등을 들 수 있다.

③ 참여 언론 기관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것에는 당시 신문과 언론기관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특히 대한매일신보사는 직접 모금활동에 참여한 기관으로서 사장인 베텔은 일경에 잡혀 옥살이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것은 주도기관인 대한매일신보사에서 보도한 의연금 명단 자료이다. (122번, 216-1351번) 의연금 명단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의

연금을 총합소에서 활동하는데 사용하여 총합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 그 이외 보도기관은 황성신문사(등재번호 1352-1967), 만세보(1968-2345),¹³⁾ 대한민보사(2346-2378), 공립신보(2379-2407), 경성신보(2408-2461), 매일신보(2462-2475) 등이다.

이상의 세계유산 기록물을 통해 운동에 참여한 정치·사회·교육 단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운동에 참여한 정치·사회·교육단체의 주요인물과 단체의 성격

연번	단체구분	주요인물	활동기간	단체성격
1	광문사 (대동광문회)	박해령, 김광재, 장상철, 강영주, 심정섭, 김우근, 서병오, 윤하선, 정재덕, 이종정 등	1906. 1907(개칭)	교육운동 사회운동
2	독립협회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양기탁, 주시경, 이준, 신채호	1896.07.02. 1898.12.25	사회정치단체
3	만민공동회	서재필, 안창호, 이상재, 장지연, 윤치호, 이승만, 남궁억, 양홍묵, 이준	1898.11.05. 1898.12.23	민회운동
4	현정연구회	이준, 양한묵, 윤희정, 심의성	1905.05.24. 1905.11	사회운동 계몽단체
5	대한자강회	윤치호(회장), 장지연, 윤희정, 심의성, 임진수, 김상범	1906.04 1907.8	사회운동단체
6	신민회	안창호, 이동휘, 양기탁, 이동녕, 이갑, 유동열, 이준, 이회영, 윤치호, 최광옥, 최남선, 이상재, 이승훈, 김구, 신채호	1907.4 1911.9	독립운동단체
7	조선광문회	최남선, 현재, 박은식	1910.12 1915	학술단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채보상운동에 참가한 단체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광문사,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현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조선광문회 등으로서, 정치, 사회, 교육, 학술 분야의 주요한 단체가 대부분 국채보상운동에 참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초기 운동을 촉진시킨 대구의 광문사의 경우는 김광

13) 동학 3대 교주 손병희 창간 민족지. 1906.6.17.~1907.6.30. 통권 293호로 폐간

제를 중심으로 박혜령, 서병오 등 지역인물이 대거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협회는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양기탁, 주시경, 신채호가 주요 인물로서, 양기탁이 나중에 통감부의 취조를 심하게 받는 것도 독립협회 조직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직의 주요 인물들과 지역활동에 대한 조사하고 운동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는 것은 기록물의 가치와 연관성을 밝힐 때도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

(2) 해외 기관

통감부의 탄압배경은 정미7늑약 체결로 통감부가 한국정부에 대한 내정간섭과 언론 규제법을 통과시켜 언론기관을 탄압하고, 국채보상운동을 배일운동으로 단정 지으며 탄압 및 공작을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채보상운동 진영은 크게 흔들렸다. 먼저 국채보상연합회 소장이던 김종한이 일진회에 가입하고, 대한자강회가 강제 해산된다. 국채보상회 총무 오영근은 보상금 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전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장 윤웅열은 ‘국채보상금반환청구서’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어 운동은 점차 소멸되어 갔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통감부(91-211), 경성이사청(199) 등이다. 이외에도 아직 수집되지 않았지만, 출처의 관점에서 보면, 통감부를 움직이는 일본내각 기록, 경성지방재판소, 대구감옥, 경성감옥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한편 통감부 관련 기록은 한국통감부의 시행기록과 일본내각의 주요 정책 결정 기록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 결재과정에 대한 중층적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김경남, 2020) 국채보상운동 탄압 관련 기록의 장소성은 일본정부를 매개로 일국사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위의 각 국가에서 차관을 도입하고 있다. 국채보

상운동이 발생함에 따라 각국은 운동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사관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사 사장 영국인 베델의 재판 과정에서 통감부, 경성재판소, 일본외무성, 도쿄에 있는 영국대사관, 영국 내각 등과 관련되어 있다. 등재 기록은 미국총영사(132), 영국정부(181, 203, 204), 도쿄 주재 영국 대사(155, 160, 180, 210), 상하이의 신문사(193, 194), 차이나 데일리 뉴스(135), 안중근재판(198) 등이다.

이처럼 기록물은 국가간 상위의 각 기관에서 중층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세계성을 가지며, 기록물의 맥락정보를 살피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영국에 각각 분산 되어 있는 기록물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5.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정리기술(記述) 규칙

1)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다계층 기술 요소

다음으로 분류체계와 다계층 기술 구조에 대하여 검토해보자. 원론적으로 분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계층 기술 구조는 фонд(fonds)－시리즈(series)－파일(files)－아이템(item)으로 계층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채보상운동기록물과 같은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경우 이러한 원론적인 측면에서 기록물의 맥락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맥락을 거의 알 수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 기술 규칙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기록물의 원질서가 무질서한 기록물일 경우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윤주범, 2004; 방효순, 2002, 신동희 등 9명, 2017; 설문원, 2017) 여기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기록물 진별 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한 다음, 디지털 메타데이터 항목을 설계하여 한 건 한 건 관리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위의 원론과는 역순으로 기록물 정리 규칙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록물의 메타 항목을 설계하고, 일단 목록을 건별로 전부 입력한 다음 메타항목을 채워나가는 방식이다. 먼저 메타데이터는 기본 항목과 선별항목을 두어 설계하여, 향후 각 기록물건별 연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사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기록물 건: 의연금 명단 (대구부)
기록물 철: 의연금 성책 (대구부)
하위 시리즈: 대구 단연채상소
상위 시리즈: 단연채상소
퐁(Fond, Record group): 국채보상운동연합회

이렇게 ISAD(G) 2ND Edition에서 정리해 오던 방식을 역순으로 정리하면 기록물의 전체적인 맥락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은 기록물을 건별로 모두 정리해야 가능한 것으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생산 출처에 따라 하나의 퐁(Fonds)으로 정리하고, 레벨(계층)을 만든다.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아이템(건)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시스템상으로 아이টে을 파일화(철)할 수 있고, 파일은 다시 시리즈로, 시리즈는 퐁으로 묶을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기록물에 대한 출처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관구조를 파악하여 대(Fond), 중(Series1), 소(Series2)로 분류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연금 기록을 정리할 때,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신문기사는 대분류 대한매일신보, 중분류 지역, 신분, 기관, 단체, 기타로 분류하며, 소분류는 아이템이 된다. 시스템상으로는 관리번호 숫자로 표기하여 제어한다.

〈표 11〉 출처별 기능분류 방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운동내부	중앙조직	국채보상단연회, 국채보상운동연합회, 국채보상정리총합소 등
	지역조직	광문사, 고령단연회, 상주단연회, 경주단연회, 면리 단체 등
	신문사	대한매일신보사, 황성신문사, 만세보사 등
	잡지사	대한지강회, 서우사, 대한유학생회
	기타	개인
2.운동외부	통감부	총무과, 경찰서
	대사관	미국대사관, 영국대사관
	재판소	대한제국재판소

위와 같이 분류체계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고, 일차적으로 운동내부와 운동외부로 분류하는 것이 일목요연하다. 내부는 다시 중앙조직과 지역조직, 신문사, 잡지사, 기타로 구성한다. 외부는 통감부, 대사관, 재판소로 분류하여 중분류를 구성한다. 소분류는 각 조직을 배치한다. 이러한 소분류의 각 조직에 대상 기록건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국채보상운동기록물과 같은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은 해당 기록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소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록관리 정리기술(記述)규칙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채보상운동기록물과 같이 맥락을 알기 힘든 기록물의 경우는 정리기술규칙을 활용하면서도 시스템상에서 역순으로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특히 ISSAR에서 제시하는 인물이나 조직에 대한 역사적 배경 항목을 넣어 정보를 제공한다면 기록물의 생산맥락과 출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기술 규칙 제안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 정리는 보통 기록물이 기록관리기관으로 이관된 뒤 수행하는 기록의 재배치 과정을 의미한다.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은 관리기관에서 기록을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기록물 정리 기술 규칙에 의하여 체계화된다. 국가기록원은 영구기록물 정리를 위한 기술(記述) 지침을 제정해 놓고 있으며(NAK13:2011), ISAD(G)를 참조하여 개발한 기술 규칙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역사기록컬렉션과 같이 매뉴스크립트로서, 해당 기록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록관리 정리기술(記述)규칙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당 기록물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 기록물의 기술(Description)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특성상 고전적으로 분류해 왔던 기록물의 품-시리즈-철-건 분류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ISAD(G) 2ND Edition와 ISSAR, NAK를 참조하여, 기록물 정리기술규칙에서 제시한 다계층 기술(multi level description)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국채보상운동기록물만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ISAD(G)가 제시하는 다계층 기술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물 생산 기관의 조직단위, 생산기능·활동·조치,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분류체계 기술항목을 ISAD(G) 2ND Edition에 따르면, 크게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열람과 이용조건영역, 연관자료영역, 주기영역, 시스템영역 등 7개로 구성하고 있다. 다음은 ISAD(G)의 표준 기술 규칙에 따라 국채보상기록물의 ITEM을 사례로 작성한 것으로, ISSAR, NAK를 참조하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 혹은 삭제하여 기술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러면 먼저 기념사업회가 제공하는 신문자료의 기술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자.

〈표 12〉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제공하는 신문자료의 기술 요소

연번	구분	기술 내용
1	기록건명	일천만 자매에게 삼가 고합니다
2	아카이브 유형	신문
3	생산일자	1907-03-14
4	소장처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5	복제본 소장 여부	소장
6	크기(가로*세로*폭)	71.02(가로)*50.04(세로)*1.00(폭)
7	유네스코 등재여부	등재
8	신문 유형	기사
9	신문명	만세보
10	지면	2면(7)
11	주요 내용	광무(光武)11년 3월에 발기인 이옥경(李옥卿) 외 9인이 발표한 국채보상여자의성회(國債報償女子義成會) 취지서를 실은 1907년 3월 14일의 신문 기사이다. 사무소는 원동(苑洞) 앞 대루원(待漏院) 여자교육회 본부 내에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기록물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신문 자료 기술 요소의 특징은 유네스코 등재여부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으며, 소장처가 외부 기관이 더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문 지면을 기입하여 원본 검색 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항목을 두고 있다. 또한 기념사업회는 원문과 번자, 한글을 모두 제공하고 시소리스 작업을 하여 상호 연관되는 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념사업회의 기술요소는 국제기록관리협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술요소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특히 기록을 제어할 수 있는 있는 관리번호가 없으며, 등재기록물을 식별할 수 있는 참조코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세계기록유산이기 때문에 국제기록협회가 제안하는 기술 요소들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술 항목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는 추가할 수 있는 기술 항목을 토대로 문서와 신문의 사례를 개발한 것이다.

(표 13)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영역과 기록정보의 기술 요소 사례 (신문)

ISAD(G) 영역	필수기술요소	ITEM 속성	국채보상운동기록물 기술요소
식별영역	참조코드 제목 생산일자	참조코드 제목(원문) 제목(한글) 제목(번역) 생산일자	M000013 (13은 등재번호) 兵童俱寄 병동구기 병정과 아이들도 기부함 1907년 2월 27일
	기술계층 기술단위와 매체	기술계층 복제본소장유무 원본구분 원본소장처	아이템(Item) 있음/사진형태 원본 국립고궁박물관
배경영역	생산자명	생산자	대한매일신보 기자
	생산배경정보	생산조직 업무정보	대한매일신보 신문기사 작성
	기록물 이력	등록자, 등록일자, 수정자, 수정일자	○○○, 2020.10.10.
	수집 이전의 출처	수집처 수집방법, 수 집일자, 구매비용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0000.00.00
내용구조 영역	범위와 내용	내용해설	상리동 이 국장 집의 상노 맹철복은 14세인데 국채의연 60전을 출연하였고, 징상대 1대에서 각 병정 이름으로 의연금 40전씩 모집하였다. 1중 1소대 병정 김성오는 부대에서 의연금을 내고 또 본사에 신화 4원을 수납하니, 아동과 병사가 모두 가상하다.
		비고	상노(床奴): 밥상 잔심부름하는 노비
	역사정보	기관정보	징상대(徵上隊): 대한제국기 평양 진 위대로서 서울에 올라와 있던 군대
		인물정보	김성오는 징상대 출신으로 평양 진 위대 근무한자로서 1907년 2월 현재 한성에서 근무함.
	지역정보	평양과 한성에 대한 정보 추가.	
평가, 처리일정 정보	보존기간/만료일	영구	
추가 정보	매체유형 기록유형 매수 크기 재질 전자화 여부	종이 신문 1매 5*5*1 코팅하지 않은 인쇄종이(非塗工紙) 전자화 (온라인 서비스 가능)	
	정리체계	서가관리번호	S01-01-01 (제1문서고-1열-1칸)
열람과 이용영역	열람조건 언어	공개구분 비공개시유 사용언어	공개 해당사항 없음 한글, 국한문혼용문

연관 자료영역	연관기록물	색인정보 (키워드)	병정, 국채의연금, 김성오, 상노(床奴), 징상대(徵上隊)
주기영역	주기	주기	없음
시스템영역 (추가영역)	건등록여부	건수량	1건
	시스템 코드	박물시스템번호	없음

〈표 14〉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영역과 기록정보의 기술 요소 사례 (고문서)

ISAD(G) 영역	필수기술요소	ITEM 속성	국채보상운동기록물 기술요소
식별영역	참조코드 제목 생산일자	참조코드 제목(원문) 제목(한글) 제목(번역) 생산일자	M000007 (7은 등재번호) 國債報償聯合會 其他文書 국채보상연합회 기타문서 국채보상연합회 기타문서 1907년 4월 30일
	기술계층 기술단위와 매체	기술계층 복제본소장유무 원본구분 원본소장처	아이템(Item) 있음 원본 한국국학진흥원
배경영역	생산자명	생산자	국채보상연합회
	생산배경정보	생산조직 업무정보	국채보상연합회
	기록물 이력	등록자, 등록일, 수정자, 수정일	○○○, 2020.10.10.
	수집 이전의 출처	수집처, 방법, 일 자, 구매비용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0000.00.00
내용구조 영역	범위와 내용	내용해설	국채보상연합회 설립의 취지를 설명. 입 금 방법 등이 다양해 하나로 통일할 필 요가 있어 연합회를 결성했다는 내용.
		비고	국채보상연합회 발기인 명단 첨부
		역사정보	기관: 국채보상연합회는 1907년 4월에 만들어져 입금방법 등을 통일하 는 등 운동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중앙조직이다. 인물 정보, 지역 정보 추가 필요
	평가, 처리일정 정보	보존기간/만료일	영구
	추가 정보	매체유형 기록유형 매수 크기 재질 전자화 여부	한문활자인쇄 취지서 1매 21.00*30.00*1.00(가로*세로*폭) 코팅하지 않은 인쇄종이(非塗工紙) 전자화 (온라인 서비스 가능)
정리체계	서가관리번호	S02-01-01 (제2문서고-1열-1칸)	

열람과 이용영역	열람조건 언어	공개구분 비공개사유 사용언어	공개 해당사항 없음 한문
연관 자료영역	연관기록물	색인정보	국제보상연합회, 입금방법
주기영역	주기	주기	없음
시스템영역 (추가영역)	건등록여부	건수량	1건
	시스템 코드	박물시스템번호	없음

〈표 13〉과 〈표 14〉와 같이 ISAD(G) 2ND Edition에 기초하여 필수 영역과 기술 요소를 설계하였다. 배경영역에는 생산자명, 생산배경정보, 기록물 이력, 수집 이전의 출처를 설정하였다. 내용구조영역에는 기록물의 범위와 내용, 평가 처리일정 정보를 기술하는데, 기록의 내용과 구조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 비고에 모르는 단어를 해설하고, 기타 정보에는 기관, 인물,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기록물을 정리하고 기술할 때 역사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며, 협력체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열람과 이용 영역에는 열람조건(공개, 비공개)과 언어에 대하여 기재한다. 언어는 한문, 국한문혼용, 일본어, 영어, 한글 등 다섯 종류이다. 그 외 연관자료영역, 주기영역, 시스템영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연관자료영역에는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단어를 발췌하여 색인정보를 기술한다. 이것은 상호 검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소러스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되므로 핵심어를 잘 선별하여 기술해야 한다.

국제보상운동기록물의 기술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언어문제이다. 언어가 위의 다섯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기록 정보를 기술하기 위하여 원문을 먼저 번자로 바꾸고, 한글화 작업을 한 다음,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등록하기 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어 문자화와 한글화 작업을 해야 한다. 문자화 할 때 아래아(·)와 같은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처리가 어려워 시스템에서 검수를 해야 한다.¹⁴⁾

6. 맺음말

본고는 세계기록유산 가운데 매뉴스크립트 컬렉션형의 기록학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하여, 최근에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 2,475건을 대상으로 생산배경과 그 출처를 분석하였으며, ISAD(G) 2nd EDITION, ISSAR, NAK를 참조하여 인위적 매뉴스크립트 컬렉션형 기술 규칙을 만들어 제안하였다. 특히 이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특성을 살려, 배경영역에 단체, 인물, 조직 등의 역사적 배경을 기술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아이템 레벨에서 기술하여, 다계층 요소를 역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다수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추세에 따라, 기록학적 관점에서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기술 규칙을 만들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은 쉘렌버그의 출처주의에 입각하여 기록의 작성 주체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활동별, 시간별, 자료의 종류별, 매체별, 주제별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제시한다면 기록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2015년도 이후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만든 인위적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이다.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생산맥락과 출처주의에 입각하여 구분하면 크게 두가지 풍(Fond)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14) 향후 아래아 한글의 호환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의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위해 당면과제라고 볼 수 있다.

첫째, 1907년부터 1910년까지 국채보상운동의 발단, 과정, 결말이라는 과정에서 민간에서 작성한 기록이다. (예시: 국채보상운동연합회) 둘째, 국채보상운동이 조약항체제와 차관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교 과정에서 작성한 기록이다.(예시: 통감부)

그리고 출처별 시리즈는 국채보상운동 조직내부와 조직외부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직 내부는 다시 중앙조직, 지역조직, 개인으로 구분하고, 조직 외부에서는 단체, 개인 등으로 구분한다. 외부기관은 탄압 조직인 통감부, 국외기관으로 일본내각, 영국대사관, 미국대사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의 분석에 기반하여 기술 규칙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ISAD(G) 2nd Edition에 입각하여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구조영역, 열람과 이용조건, 연관자료영역, 주기영역, 시스템영역(추가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특히 매뉴스크립트 컬렉션형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ISSAR에서 제안한 인물, 조직, 단체 등의 역사적 배경을 기입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사용자가 기록물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으로서 기본적으로 아이탬(건)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탬 레벨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할 것이다. 시스템상으로는 아이탬을 파일화(철)할 수 있고, 파일은 다시 시리즈로, 시리즈는 품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또한 디스크립션에 최대한 필수적인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등에 대한 연계 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채보상운동에서 의연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지역정보, 인물정보, 성별정보, 조직정보 등의 연계 정보는 효용성을 더해줄 것이다.

이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ISAD(G) 2nd. Edition에 입각하여 메타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기술 규칙에 추가정보와 연계정보를 더

육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립고궁박물관, 한국연구원, 서울대 등 원문 소장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사학적인 배경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는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이 등재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기록학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게 하고,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업 작업은 박물관학, 역사학, 기록학 등 학제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건홍 (2019).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 연구: 기록재조직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1, 5-29.
-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19~2021), 국채보상운동자료집 1~5권
- 김경남 (2017). 大原社会問題研究所와 제일 한인 독립운동: 오하라사회문제연구소 소장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117-151.
- 김경남 (2019). 국채보상운동과 국채보상운동기록물 디지털화의 세계사적 의미,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경북대학교, 한국디지털인문학협회의, 초연결 시대의 글로컬 인문학. 대구: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 김경남 (2020).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적 책임,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김귀배 (2019).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경북대학교, 한국디지털인문학협회의, 초연결 시대의 글로컬 인문학. 대구: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 김도형 (1997). 한말 대구지역 상인층의 동향과 국채보상운동, 계명사학, 8, 270-272.
- 김상신 (2016). 젠킨슨과 쉘렌버그의 기록학 이론 비교연구, 기록학연구, 50, 61-95.
- 김성희 (2005). 기록물 생산자 전제제어를 통한 맥락정보의 구축 및 교환: ISAAR(CPF) 2판과 EAC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 학술대회논문집, 87-110.
- 김솔아 (2013). 사할린 한인 관련 역사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 국가기록원 컬렉션 수집 및 분류·기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 이성숙 (2020). RIC-CM을 적용한 영구기록물 기술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 115-137.
- 김유선, 이명규 (2018).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소장 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155-175.
- 김형목 (2016). 충청도 국채보상운동, 서울: 도서출판 선인.
- 나눔과 책임연구소 (2017). 세계가 주목하는 국채보상운동, 나눔과 책임연구소.
- 박성우·정대근 (2017).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403.
- 박정옥·이명규 (2013).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3-2, 5-42.
- 방효순 (2002). 출처주의의 새로운 경향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 69-92.
- 설문원 (2011).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 설문원 (2017). 기록관리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담론 분석: 출처주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2, 59-117.
- 신동희 등 9명 (2017). 무질서의 원질서: 개인기록 정리에 있어 원질서 존중 원칙의 실효성 고찰, 기록학연구, 54, 5-44.
- 아사노부 기타모토(2019). 인문학 콘텐츠와 미디어 과학,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경북대학교,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 초연결 시대의 글로컬 인문학. 대구: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 앤드류 헨더슨 (2019). 디지털 시대의 세계기록유산,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경북대학교,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 초연결 시대의 글로컬 인문학.
- 엄창욱, 남권희, 전재동, 이정호 (2019). 국채보상운동 사람 기억 공간,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오정희, 정연경 (2018). 독립 운동 컬렉션 분류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공훈전자자료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99-124.
- 윤주범 (2004).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정리기술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2), 118-162.
- 윤혜선, 정연경 (2020). 생산자 중심의 단체기록물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4, 157-186.
- 이영숙 (2005). 시민단체 기록 분류방안 연구: 환경연합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3-101.
- 이호신 (2016). 공연예술기록의 정리와 기술에 관한 담론: 출처중심주의와 원질서 유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151-174.
- 전명혁 (2004). 민주화운동기록물의 범주 및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史林, 69-90.

- 정진업 (2008). 매뉴스크립트 분류체계 개발방안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장 「한국YMCA전국연맹」 컬렉션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민지 (2011).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27, 89-118.
- 채수도 (2021). 일본제국주의의 침병 동아동문회,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헤롤드 쇼트 (2019). 인문학연구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통섭,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경북대학교,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 초연결 시대의 글로컬 인문학. 대구: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 David A Bearman. (1985), Richard H Lytle, The Power of the Principle of Provenance, *Archivaria* 21, 14-27.
- Randall C. Jimerson (2002), Arrangement techniqu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OCLC Systems & Services: International digital library perspectives*.
- Schellenberg, Theodore R. (1956),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ellenberg, Theodore R. (1965), *The Management of Archiv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haron Thibodeau (1995) Archival Context as Archival Authority Record: The ISAAR(CPF) *Archivaria* 40, 75-85.
- Terry Cook (1993), The Concept of the Archival Fonds in the Post-Custodial Era - Theory, Problems and Solutions, *Archivaria* 35, 24-37.
- Kent M. Haworth (2009) *Archival Description: Content and Context in Search of Structure*, *Journal of Internet Cataloging*, 7-26.

〈관련법령〉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웹사이트〉

- 5·18기념재단, <https://518.org/nmain.php>, 2021.12.23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https://en.unesco.org/programme/mow/documents>
-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https://www.gukchae.com>